



## 개강수련회 개최, 지방회통합 권면

### 64차 총회 제2회 임원회

교단 제64차 총회 제2회 임원회가 지난 22일(월) 오후 1시 울산 갈릴리온소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에서 열려 첫번째 실행위를 앞두고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종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조원의 목사의 기도, 총회장 진등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 목사는 고전 4: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택한 백성으로서 귀한 직분자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

복했다. 설교 후 총회장 진등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총회장 진등용 목사 주제로 회의가 열려 먼저 총무보고사항으로 교단의 그동안 업무를 보고했다.

64차 정기총회 추가 후원자명단과 2016년도 목사 고시 일정이 확정된 것을 보고했다. 목사고시는 오는 8월 28일(금) 오후 5시까지 접수마감기로 했으며 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에서 목사고시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계보고사항으로 동성애반대 모임 참석 등의 사안이 보고되었다. 회계보고사항으로 수입부(재무 김종연 목사)와 지출부(회계 김영준 목사)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결의 및 안건토의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교역자은퇴보고 사항이 결의되었다.

이어 각 국장, 위원장 결원 인선이 있었으며 64차 총회장 진등용 목사 취임감사예배, 전국신학생 개강 연합수련회, 총회 상회비 납부 독려금, 지방회별 교단발전기금 납입금, 64-1차 실행위 점검, 지방회 통합 및 복귀 권 등이 보고되어 이를 처리했다.

## 2016년도 목사고시 일정 확정

성경시험 강화, 성경이해 및 적용도에 초점

### 교단 고시위원회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18일(목) 오전 11시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고시위원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영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히 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삶을 강

조하고 근본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을 당부한 뒤 고시위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는 2016년도 고시일정을 점검하고 세부 일정과 내용들을 확정했다. 신실한 주의 일꾼을 선별하기 위해 성경과목들을 강화하여 성경주제별 성구암송 및 분석 등을 통해 성경 전체를 공부하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각 고시위원별로 문제를 출제하여 이를 종합한 뒤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선별하여 고시를 치르도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에 결정된 고시위원회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류접수 마감 : 2015년 8월 28일(금) 17:00 도착분에 한함. △목사고시 청원서 작성 및 제출 : 총회홈페이지(www.aogk.org)-자료실, △서류우편접수처 :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 11시(총회본부 회의실), △오리엔테이션 :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총회본부),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23일(화)까지, △성경고시 : 23일(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고시료 : 50만원-임금제와 국민은행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조용목 목사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0:38,39) ”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칭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의인이 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33년의 세월을 지내시면서 오해와 비난, 멸시와 박대를 당하셨으며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가면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며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된 우리는 탐심으로 구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여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공정하게 상과 벌을 주십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일들은 인정받게 될 것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의 언약하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증명 중에 압권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약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면 그 믿음의 결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그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혼돈을 질서와 조화로, 공허를 부요와 충만으로, 흑암을 빛과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은 이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약속대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성령께서 의인이 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 그 믿음의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기대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답답함이 없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예금주 임종달

설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교단 정책위원장



진등용 목사  
새소망교회 담임  
교단 총회장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총회장 진등용 목사 취임 감사예배

초·대·의·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님과 증경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총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총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광고 지면으로 초대장을 대신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일시 2015년 7월 20일(월) 오전 11시

장소 새소망교회(담임 진등용 목사)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교회 : 041)545-4540 H.P : 010-7406-4540  
\*네비게이션에서는 온양은천순복음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인권 편향 규탄 성명

한교연, 즉각 사과하고 물러날 것 촉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쿼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축하하면서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지칭한데 대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민의 인권은 소홀히 한 채 성소수자 인권보호에만 몰두해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방한 잘못을 사과하고 즉각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쿼어문화축제에서 기독교를 ‘혐오세력’ 이라고 지칭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권의를 대변해야 할 공직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모름지기 공직자라면 다양한 견해 앞에

편중과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그가 공직자로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그가 메르스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비상사국인 이때에 동성애자 축제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데 국민 96%가 반대하는 쿼어축제 축하자로 연단에 서서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온갖 편향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우리는 문경란 씨가 쏟아낸 말들을 들으며 그가 서울시 인권위원장이자 동성애축제 조직위원장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성명은 이어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이 같은 인권 편향적 발언을 놓고 볼 때 쿼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개 과장에게 떠넘기고 철저상 철회할 수 없었던 박원순 시장의 이중적 자세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단언컨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1천만 기독교인들의 존엄을 짓밟은 폭거”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민의 인권은 소홀히 한채 성소수자 인권보호에만 몰두해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방한 잘못을 사과하고 즉각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과 박원순 시장은 인권을 가장한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첫 공식주일예배 130주년 기념예배’ 드려

미 델라웨어제일장로교회 축하단 방한, 다양한 행사 진행

1885년 6월 21일 알렌 선교사 부부, 헤론 선교사 부부, 스크랜튼 선교사의 어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개신교 첫 공식 주일예배(First State Sunday service)가 드려진 지 130년을 맞아 지난 21일 오후 3시 남대문교회(손운탁 목사)에서 ‘첫 공식주일예배 13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기념예배에는 ‘주님의 교회’를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인 정영택 목사(경주제일교회)가 설교, 초기 선교사들의 연합 정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스크랜튼 장로(스크랜튼 의사의 어머니)에 의하여 시작된 상동감리교회의 서철 목사가 축도, 공식주일예배 1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알렌 선교사의 묘교회인 미국 오하이오 델라웨어제일장로교회 테보라 패터슨 목사(Rev. Debora Patterson)가 연합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앞서 첫 공식주일예배 13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6월 19일(금) 오후 8시 남대문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 연주회에는 델라웨어제일교회의 오르가니스트인 Dr. Joe Musser(Ohio Wesleyan 대학교 교수)의 축하

연주를 비롯해 남대문교회 각급 찬양대와 전문 연주자들이 출연했다.

또한 6월 20일(토) 오후 1시에는 ‘첫 공식주일예배 130주년 기념역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알렌, 제중원 그리고 ‘첫 공식주일예배’와 ‘헤론, 제중원 그리고 순교적 삶’을 주제로 4명의 전문가가 발제하고 토론했다.

남대문교회 손운탁 목사는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는 제중원에서 시작되었다”며 “알렌 선교사의 제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신앙공동체였다. 1885년 6월 2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공식적인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제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사를 집례하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하여 초기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개척된 만큼 제중원 신앙공동체는 단순히 남대문교회의 역사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첫 공식주일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알렌 선교사의 묘교회인 델라웨어제일장로교회 8명의 축하 사절들은 인천과 서



울 각지의 알렌선교사 선교 유적지와 양호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을 돌아보고 남대문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나눔 홍보

대학생 장기기증 홍보대사 ‘SAVE9!’ 3기 발대식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충정로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전국의 대학생 35명과 함께 대학생 장기기증 홍보대사 ‘SAVE9’ 3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국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SAVE9’ 프로그램은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3년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6년 임직원 각각 기증 서약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10년째

장기기증운동을 후원해오고 있다.

‘SAVE9’ 3기를 위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온, 오프라인을 통해 참가자 신청 접수를 받아 생명 나눔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대학생 35명을 선발했다. ‘SAVE9’ 홍보대사로 발탁된 35명의 대학생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과 야외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장기기증 등록

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마다 봉사활동을 진행해온 신한은행의 임직원들도 35명의 홍보대사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뤄 장기기증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SAVE9’ 3기 발대식에는 생명나눔과 인연이 있는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대학생 홍보대사에 지원한 백희진 씨(23세, 단국대)는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며 우리나라의 낮은 장기기증율에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지원 동기를 전했다.

박진택 이사장은 “지난해 전국 42개 대학교 캠퍼스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이 펼쳐져 6,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생명나눔을 약속해 주었다”며 “이번 SAVE9 3기 학생들의 생명나눔에 대한 열정과 패기로 국내 장기기증 문화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길 기대해본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2114 (내선3)

## 성서운동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협력 요청

대한성서공회 신임이사장 이정익 목사 기자회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지난 19일(금) 오후 3시, 서초동 성서회관에서 신임이사장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제123회 정기이사회(6월 26일)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정익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한성서공회(원의현 사장)의 성서운동을 소개하고 한국 교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이 이사장은 “대한성서공회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서 성경의 번역 출판 보급사업을 수행하여 온지 1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대한성서공회의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 성서운동에 기여해 온 전통을 계승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1895년에 ‘대영성서공회 한국지부’로 시작한 대한성서공회가 1979년에 재정적으로 자립하기까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성서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한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해마다 240여 언어로 된 600만 부가 넘는 성서를 제작하여 120여 나라에 보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정이 없는 자매 성서공회들의 성서 보급을 돕기 위해 해외 성서 기증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미의 에파도르성서공회가 6년 전에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에파도르의 성서 보급을 돕기위하여 대한성서공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성서를 전적으로 기증했으며, 6년이 지난 지금 에파도르성서공회는 이를 통

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성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바에 20,000여 권의 성경을 지원하는 성서공회로 성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가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성서공회는 해외 성서 보급과 기증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올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 11월 24일에 열린 정동제일교회에서의 기념 예배와 학술신포지엄을 개최한다. 학술신포지엄은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120년간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성서 운동에 기여한 것을 돌아보고 ‘개역의 전통’을 있는 한국 교회 예배용 성경 사용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성서사업의 과제와 비전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정익 신임이사장은 “지금까지 국내외 성서 운동을 감당해 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성서공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며 세계 성서 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의 출판과 반포하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 그 주인은 한국교회다”라고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했다.

## “동성애 확산 음모 즉각 중단하라”

백석총회, 지난 16일 동성애 확산 관련 성명서

예장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파고드는 ‘동성애’를 저지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16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확산 음모 즉각 중단하리’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교육과 법제정으로 접근하는 동성애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어 오는 28일 주일에는 교단 신하 5300교회가 일제히 동성애 반대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동성애 반대주일에는 전국교회가 동일한 설교로 동성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게 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기도할 예정이다.

백석총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인권과 법을 앞세워 동성애를 확산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과 창조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 질

서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문화적 타락으로 이끄는 죄악된 길”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가 열리고, 오는 28일까지 축제와 퍼레이드가 계속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앞세워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몰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동성애의 확산 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며, 균형법 조항 개정운동까지 펼치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석총회는 특히 동성애가 청소년들의 의식을 파고드는 것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청소년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오히려 교육당국은 동성애로 인한 폐해를 정확히 알리는 교육에 힘과 창조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 질

백석총회는 “우리는 국내에 수많은 약자와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문화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파고드는 동성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관련 부처 혹은 기업이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이에 적극 반대하고 강력한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장종현 총회장은 “동성애자들도 복음이 필요한 전도의 대상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에 힘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동성애 확산 저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 해결 위한 한국교회의 근본적 해법 모색

CTS,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는 17일 CTS 컨벤션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독교계와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 ‘저출산 시대, 한국교회는?’을 개최했다.

CTS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박종화 목사(영동교회)가 좌장을 맡고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신정 목사(영양대광교회), 김성수 회장(한국기독교교료연합회), 국민호 목사(종단지구총교회) 등 저출산 및 영유아 교육 관련 최고 권위자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과 기독교계와 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주제 및 사례발표, 토론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CTS 김정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회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하나 된 마음으로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금일 논의의 의견들을 모아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저출산 극복을 통한 영유아보육 및 교육정책을 한국교회와 함께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출산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윤옥 의원 (한지녀 더 갖기 운동연합 회장)은 과거 저출산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 그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저출산의 진짜 원인인 만혼,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비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육비 지원에서 나아가 고용과 노동시장의 개선, 임시위주 교육이나 사교육비 증가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상진 교수가 ‘저출산 시대, 기독교육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저출산 현상 속에서의 교회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적절하게 응전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교육 방안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교육실현 △교회가가 자녀양육공동체로서 지원체계 확립 △생명력 있는 기독교교육 생태계 복원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신정 목사와 김성수 회장, 국민호 목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기독교교육’에 있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지정토론 ‘어린이 교육선교 발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호 목사는 “청소년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시작한 사역은 거룩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학교 사역임을 기억해보았을 때 기독교교육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어린이를 위한 ‘2015 CCM 경연대회’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에서 열린다

‘2015년 어린이를 위한 CCM 경연대회’가 7월 24~25일 양일간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에서 열린다.

매년 여름·겨울캠프에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영어선교캠프인 EMC를 주최했던 글로벌교육선교회에서 이번 여름에는 어린이 찬양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찬양을 좋아하는 예수님의 어린이들을 위한 CCM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기독교 방송사인 C채널과 협

력하여 진행하며 본선 대회를 C채널 방송에서 녹화 방영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찬양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부분은 개인부분과 중창, 합창으로 나뉘지며, 참가자는 지정곡 1곡과 자유곡 1곡을 준비해야 한다.

원거리 참가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1박 2일로 진행되는 CCM대회 첫째 날에는 찬양대회 및 아이들이 좋아하는 CCM콘서트와 예선전이 진행되며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

퍼스 기숙사에서의 1박과 함께 캠퍼스투어가 이루어진다. 둘째 날은 결승전과 시상식이 펼쳐지게 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가 기독교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미비한 국내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 문화의 장이 넓어지고, 찬양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재능발굴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접수 마감일은 7월 3일(금)이며 전화(054-559-7095) 또는 이메일(angwon@gemgem.org)로 가능하다.

(문의: 054-559-7095, www.gemgem.org)

## 목사임직예배, “순종하며 맡긴 일에 최선을”

###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영광 목사)는 지난 7일(주일) 오후 4시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286-1 소재 연천순복음교회(담임 임영광 목사)에서 목사임직예배를 드리고, 목사임직자 분승주 목사의 앞날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광호 목사(동본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국교회)의 성경봉독(산상16:6-13)에 이어 지방회장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는 ‘이거 그니 기쁨을 부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현재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기쁨을 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분승주 목사의 목회사역현장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충만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통성기도



했으며, 회계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헌금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목사임직식은 안수위원장 임영광 목사(지방회회장) 집례로 안수위원 엄석 목사(증경회장), 김석송 목사(증경회장), 임웅재 목사(증경회장), 김종연 목사(증경회장), 김홍광 목사(직전회장)가 참여한 가운데 분승주 전도사에게 본 교단 헌법 제 37조 1항에 의거하여 서약을 받고 임직기도, 착의식, 약수례, 공포, 안수증, 임직패를 증명했다.

3부 권면과 격려사 및 축하시간에는 증경

회장 엄석 목사(주성교회)의 권면, 증경회장 임웅재 목사(순복음산정리교회), 증경회장 김종연 목사(의정부은혜교회), 증경회장 김홍광 목사(주내순복음교회)의 축하 메시지 후에 분승주 목사(시온성교회)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증경회장 김석송 목사(순복음천성교회)의 축도로 목사임직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후 연천순복음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애찬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순복음참좋은교회 입당, ‘큰 부흥을 이루라’ 축복

###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인 목사)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순복음참좋은교회(담임 조은주 목사) 입당예배를 드렸다. 총무 최정식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김임복 목사의 대표기도, 카라몐찬양단의 특송에 이어 지방회장 김영인 목사가 마 14:13-21 말씀을 본문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교회의 사명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의 떡인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값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풍성한 하나님은 먹이고도 남게 주신다며 순복음참좋은교회는 일꾼들을 통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



큰 부흥을 이루라”며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고재와 장로의 연혁보고, 부회장 장영기 목사의 헌금기도와 첼로협주단의 특송 그리고 직전지방회장과 장두진 목사(풍성한교회)의 축사, 담임 조은주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증경회장 주덕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순복음참좋은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오찬을 통해 행복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월례회에서는 박우진 목사를 초청 준비된 동영상과 자료 통해 동성애벌의 심각성과 이슬람의 정체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6월 월례회,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본받자”

###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 6월 월례회가 지난 12일 동강순복음교회(담임 최남성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찬식 목사(고흥 송곡교회)의 사회,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기도, 이어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순복음장성교회)가 록 19:29의 말씀을 본문으로 ‘삭개오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예로 들면서 “목사는 성도가 예수님을 잘 만나도록 인도하는 길잡이와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회 총무 정찬식 목사의 인도로 첫 번째 MERS로 혼란에 빠져 있는 나라와 동성에 확산 저지를 위해, 두 번째 총회



정책위원장과 위원들, 64차 임원진들을 위하여, 세 번째 지방회의 각 교회들의 부흥과 회원 목사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사회로 회무처리를 하였고 7월 월례회를 고흥 송곡교회(정찬식 목사)에서 갖

기로 결정했다. 이후 고흥 녹동 비닷기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동강순복음교회(최남성 목사)가 제공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순복음녹동교회(백영자 목사)를 방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교회와 부병 중에 있는 백 목사의 부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6월 월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 동성애반대집회와 하계수양회 등 의견 나뉘

###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명점 목사)는 지난 8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주천교회(담임 윤해영 목사)에서 6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 재부 김경옥 목사(순복음하늘소망교회)의 기도,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부회장 신복희 목사(순복음광평교회)가 마 11:28-30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하며, 쉬를 얻고 새 힘을 가져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주었다.

설교를 마치고 교단과 지방회와 교회를 위해 통성기도하고 안병선 목사(순복음장성교회)의 헌금기도, 홍한철 목사(은혜충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한명점 목사 사회로 회무처리 후 하계수양회와 동성애반대집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월례회를 마쳤다. 이후 순복음주천교회(윤해영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했다.

## 목사임직예배, 하나님의 영광 위해 헌신

###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홍열 목사)는 지난 6월(월) 오전 11시 원주 샘물교회(담임교역자 박규희)에서 박규희 전도사의 목사임직



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진장길 목사(상지교회)의 사회, 부회장 차충열 목사(세계로교회)의 기도, 최정희 목사의 성경봉독, 박하라 성도의 특송에 이어 증경총회장 이창제 목사(진부제일교회)가 고전 10:31 말씀을 본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했다.

2부 목사 안수식은 안수위원장 유홍열 목사(지방회회장)의 집례로 임직지와 교인들에게 서약을 받고 안수위원들의 안수, 착의식, 약수례에 이어 안수위원장의 공포와 임직증서 및 임직패 증명 순서로 진행되었다.

3부 권면과 축사의 시간에는 증경회장 박순용 목사와 김종덕 목사(원주은혜와진리교회)의 축사, 증경회장 강내봉 목사의 권면, 박규희 목사의 감사인사,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규희 목사는 감사인사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석한 지방회 임원들과 회원 목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목회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 목사임직예배, 충성·헌신 사명감당 다짐

###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진호 목사)는 지난 20일(토) 오전 11시 사랑안교회(담임교역자 박윤석)에서 박윤석 전도사의 목사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꾼으로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오세준 목사의 기도, 재부 지용득 목사의 성경봉독, 회계 박태균 목사의 특송에 이어 강희동 목사(예수사랑제지원장)가 설교했다.

이어진 목사안수식은 지방회장 김진호 목사의 집례로 서약, 안수위원들의 안수, 착의, 약수례에 이어 안수위원장 김진호 목사의 공포 순서로 진행되었다.



축하와 권면, 격려의 시간에는 증경회장 송광현 목사가 권면,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부회장) 성선호 목사가 축사, 최명성 목사가 격려사를 각각 전하며 박윤석 목사의 목

회자로서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모두 마친 참석자들은 사랑안교회에서 마련한 애찬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5년 7월 13일(월) ~ 17일(금) 4박 5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강 사 : 본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 직전 총회장 김용덕 목사, 김종호 목사, 최병진 목사, 이성석 목사, 이원용 목사

- 등록 마감 : 2015년 7월 8일(수) 17:00
- 기 타 : 재학생은 무료, 미 취득 학점이 있을 시 학점 대체함
- 문 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 선교 헌금 : 1,200,000원
- 선교 헌금 입금계좌 : 농협 302-0928-2133-91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 ■ 생명의 말씀 ■



신재영 목사

· 대구북경지방회장  
· 새김교회 담임

한 부자 집에 성실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그 노예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 했으니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 강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면 낙원이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살라.” 이 노예는 기뻐서 아찔 줄을 풀랐습니다. 주인의 창고에서 평생 먹고 살 모든 것을 며칠 동안 배에 가득 옮겨 실은 이 노예는 자신이 살아야 할 낙원으로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이 노예는 한참을 향해하다가 뜻밖에 큰 폭풍을 만나 배는 파손되고 싶었던 모든 것은 물속에 수장되고 자신만은 구사일생으로 한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섬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뜻밖에도 화려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 나와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입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 중요한 인생과 중요한 시기에 깨어 있는 성도

(롬 13:11~14)

이 땅에서 1년을 산 다음에는 다른 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당신이 가야 할 섬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이며 또 한 곳은 지금도 화산이 터져서 유황불이 넘치는 지옥입니다. 당신은 어떤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 주인이 낙원에 가서 살리고 자유를 주었으니 당연히 낙원에 가서 살아야지요?” “모든 사람이 낙원 가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다 낙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왕으로 있을 동안에 잘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던져지든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배를 타고 강을 내려오다가 파선을 하여 올라간 섬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날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왕처럼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곳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게나와 자다가 깨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첫째로,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이 짙게 깔린 어두운 밤의 세상입니다. 죄악과 거짓, 불의와 불신, 또한 온통 탐욕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방치하여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동성결혼, 동성연애의 합법화 법제화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진리를 거역하는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이며, 동성애의 확산은 분명히 세상에 만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히도 행하는 이 시대에 성도 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타락이 최고조로 달렸음을 보여주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눅 17:26-29). 여기서 롯의 때로 상징되는 소돔성은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연애가 만연한 곳이었습니. 영어로 sodomite라고 하면 동성연애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본래 ‘소돔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돔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의 때와 같은 세

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나야 합니다.**

엡 5:8-9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빛의 자녀이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더 이상 나랑 상관 없다”고 하는 절대 확신 속에서 어두움을 날마다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어둠의 일을 6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방탕입니다. 둘째, 술 취함입니다. 셋째, 음란입니다. 넷째, 호색입니다. 다섯째, 쟁투입니다. 여섯째, 시기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성령충만함으로 벗어 버려야 합니다.

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두움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람과 진리를 빛으로 드러내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단정히 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자다가 깨어서 어두움의 일을 날마다 벗어나고 단정하게 사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나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땅하며, 또한 동성애자들의 법적인 도발을 돕는 법조인들도 국민정신 건강과 국론 분열현상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서둘러도 행정지도를 통해 장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자유에 대한 차별이며, 인권이 지나치면 사회적 아집이 되며, 법을 함부로 갖다 붙여 국민을 옭아매는 것이 되면, 약법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를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할뿐이다.

동성애가 그들의 주장대로 성의 한 형태로 본다면, 성(性)을 공공의 장소로 이끌고 나옴에 때에 성의 건강성의 문제는 물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동성애를 행하므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대가 있었기를 찾아야 한다.

## 동 정

CBS, 재단이사장에 류영모 목사



CBS 기독교방송 재단이사회는 지난 18일 CBS 본관 재단이사회실에서 제27대 재단이사장에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를

선출했다. 류영모 목사는 그 동안 CBS 이사로서 방송설교자로 CBS 방송선교의 새 장을 여는 데 헌신과 열정을 다했다. 특히 CBS 성서학당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경목위원장에 신철모 목사



경찰청 경목위원장에 신철모 목사(침례신문사 사장)가 취임했다. 경찰청 교회(박노아 목사)는 지난 17일 창립 34주년 감사예배와 함께 신철모 목사 경목위원장 취임예배를 드렸다. 신임 경목위원장으로 취임한 신철모 목사는 제39대 교경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며 경찰복음화금식대성회를 주관했다.

상암동교회, 창립 60주년



상암동교회(담임 목사 신민규)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대한기독교사회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목협 전국수련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는 지난 23일 침례신학대학교 자유관에서 제17회 전국수련회를 개최했다. 해방

분단 70년, 선교 130년 이후, 한국교회의 미래를 모색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주제발표와 전체모임을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퀴어문화축제 반대는 국민의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다

지난 4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병해금지차처분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 위원회는 এস터기독교운동과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대표 등을 상대로 가져분을 신청했는데 자신들이 행사를 할 때, 서울광장에서 기도회나 집회, 행사장과 50m 이내 접근 금지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구호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각 호에 대한 위반 시,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물론,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는 입장에 서는 이를 반대하는 의사 표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적 가치와 가정 질서, 그리고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합법적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반대 의

견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벌금을 물리고,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채권자가 되어, 대다수 국민들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물리려는 발상과 이를 부추기는 일부 법조인들의 행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온 나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불안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병확산의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반나체와 음란한 모습들을 불특정 다수의 서울시민들과 국민들 앞에서 굳이 보여야겠다고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묻

고 싶다. 거기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벌금을 채기겠다는 채권자 의식은, 도대체 무엇이 란 말인가?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단체만의 의견이 아니다. 지난 6월 초에 모 인터넷 포털을 통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서울광장에서 동성애(퀴어)축제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96%의 네티즌들이 반대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행사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모든 행사를 철회해야

## 목회담당 부목사 청빙

(현 담임목사는 선교담당)

2년 후 조건 없이(단 교인투표 2/3 가결)  
담임목사로 위임함.

**자 격** 목회 경력 5년 이상, 66년 이후 출생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마감** 2015년 6월 30일(화)까지

**보 낼 곳** qusghk1@hanmail.net

## 울산사랑의교회

http://ulsansrch.onmam.com

## ‘혈몬산 기도의 집’ 매주 목요일 일일집회 및 찬양기도회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 기도의 집에서는 매주 목요일  
일일집회 및 찬양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령충만과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담임 김남순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장 소** 혈몬산 기도의 집(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산113번지 031)356-9154

**문 의** 혈몬산 기도의 집 담임 김남순 목사 010-2415-2062

## 목양 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 국민의식을 함양(涵養)하자

어느 날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조언을 얻고자할 때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시기한 한 젊은이가 그를 모함해 여기저기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청년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노인을 찾아가 용서를 청하기로 합니다.

“어르신,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시기심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어르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비록 지나간 일이지만 어르신께 용서를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깃털로 채워진 베개를 하나 사게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 그 베개 안에 있는 깃털을 모두 날리고 나를 다시 찾아오게”

젊은이는 생각보다 쉬운 요구에 한 걸음에 달려가 베개를 사서 마을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깃털을 모두 날리고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사기는 대로 베개 속 깃털을 모두 날리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그럼 이제 그 깃털을 다시 모아 오게나.”

“아니 어르신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깃털은 이미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것들을 모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젊은이는 불렌소리로 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의 말을 들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는 일은 이미 날아가 버린 그 깃털을 모두 모으는 것과 같은 일이라네”

젊은이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고 노인의 가르침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출처 : 신주모 지음, 시월 그림, 다시용기를 부르는 주본, 프롬북스 2015, PP114-115)

작금에 ‘메르스(MERS)’ 문제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나, 정보 공유나 하여 국민적 감정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직한지 분별감이 상실되어가다 보니 한 귀퉁이에서는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까지 보인다. 국민적 아픔을 해결하는데 이념을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정직하지 못하다. 이는 애국심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일체감을 훼손시킬 뿐이다. 국민적 일체감이 훼손되면 ‘메르스’가 재어된 후에도 그 상처는 더 크게 남는다.



또한 무분별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의 진정성도 의심을 받는다. 말이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함으로, 말을 거려서 해야 하며, 발설한 말은 책임을 지겠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의혹을 갖게 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국가관으로, 서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아갈도록 하자. ‘메르스’ 사태 하에 단합된 국민의식을 보이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금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좀 더 마음을 모아! 힘을 합하자! 또한 서로서로에게 예절을 지킴으로, 조금씩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단합된 국민의식을 함양(涵養)하자.

“여호와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질 가지니 곧 곤고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죄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잠 6:16-19)

## 온선 칼럼

문천우 목사 //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 D)

## 살인미소 (killer smile)

(마 19:19)



언젠가 인터넷에서 한 남자 연예인에 대해 ‘국보급 살인미소’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요즘에는 멋진 미소를 두고 ‘살인미소’라 하는데, 이 표현은 영어의 ‘killer smile’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듯합니다.

아무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문학사상 최고의 살인미소를 고르게 한다면, 단연코 다수의 사람들이 F.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의 주인공인 개츠비를 언급할 것입니다. “한 순간 외부 세계를 대면하고 있는 미소였고 또한 아찔 수 없이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으며 당신에게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맹세하는 듯한 미소였다. 당신이 이해받고 싶은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있고, 당신이 스스로 믿는 만큼 당신을 믿고 있으며, 당신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최상의 호의적인 인상을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미소였다.” (위대한 개츠비, p. 76, 민음사, 2003) 소설 속 관찰자 닉 캐러웨이의 묘사대로라면, 개츠비의 미소는 지상 최고의 미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살인미소의 지존인 개츠비의 이면에는 그가 세상에 뽐내려는 광휘의 분량만큼의 ‘무겁고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늘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높은 신분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끝없이 ‘척’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출신, 경력, 학력 등을 속이고 살던 개츠비는 지독한 ‘가면 중후군(Imposter Syndrome,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것을 두려워하는 정서적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세가 심해질수록 그의 살인미소는 고도

의 차원으로 진화했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을 어떻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데이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개츠비는 그녀를 미친 듯, 비보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사랑했던 그녀는 전형적인 속물로서, 한순간도 그에게 참된 사랑을 준 적이 없습니다. 데이지는 끝없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소위 말하는, 희망교분을 했고, 개츠비는 그녀의 알 수 없는 태도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다니다가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미소였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분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선 높은 피에르처럼 경멸, 고독, 절망, 비애만을 보여주었던 개츠비, 그는 본 소질이 쓰였던 1920년대의 방황하던 미국 사회의 상징이자, 동시에 끝없이 세상 앞에서 살인미소를 구사하며 구애를 하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스러져가도록 방치한 채로,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겠다는 나서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 19:19) 그 대상이 여자인, 남자인, 인간인, 성공인, 이상인, 그 무엇이던 간에, 자신을 피폐하면서까지 소유하려는 심라는 사랑이 아닌, 집착이나 회피, 혹은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삶을 살이 되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자유가 있고, 창조가 있으며, 무엇보다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당신의 영혼을 억압하고, 지쳐 병들어 하며, 종국에는 죽게 만드는 살인자라면 그 미소가 말로, 진정한 의미의 살인미소(killer smile)일 것입니다.

## 사모에 의한 힐링캠프 ‘러빙유’

하이패밀리 치유상담센터 주최

44차 사모의, 사모를 위한, 사모에 의한 힐링캠프 ‘러빙유(Loving You)’가 지난 16일(화) ~ 18일(목)까지 2박 3일 동안 하이패밀리 치유상담센터(원장 김향숙) 주최로 진행되었다.

사모들은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자리에 있다. 사역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닌 애매모호한 포지션, 성도들의 높은 기대, 낮은 자존감, 억압된 부정적 정서, 좌절된 자아실현의 욕구는 사모를 힘들게 하는 5종 세트다. 러빙유는 바로 이 사모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모전문치유세미나다.

전 스태프들이 러빙유를 통해 치유를 경험한 뒤 가정 사역자로 사역하는 사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모세미나다.

러빙유 개발자이며 주강사인 김향숙 원장은 “사모라면 누구나 크든 작든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

다. 상처를 받자면 사모의 내면을 파괴하는 독소가 되지만, 회복하면 상처가 곧 사역이요, 사모의 내면이 회복되는 것은 개척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사모가 행복해야 목회자가 행복하고,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회의 행복과 건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죠.”

자아상, 관계, 쓴 마음, 경쟁기, 비전이라는 5단계를 거치면서 사모들은 행복으로 다시 태어난다. 몸, 마음, 영혼의 묶은 때를 맡김이 씻어내며 행복으로 출구는 사모들,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이다.

이 기적과 같은 러빙유의 회복 스토리가 “절혼한 여자도 힐링이 필요해(2015, 두란노)”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문의 : 02-2057-0033, www.hifamily.net

## 동성애 쿼어축제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강행

쿼어축제 반대자들을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9일 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쿼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쿼어문화 축제>가 열렸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하여, 한국 사회 전체가 불안해하는 가운데도 강행되었다.

한국에서의 동성애 축제에 6월 2일 모 인터넷 포털상에서 4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울광장 동성애 축제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서도, 사회 통념에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96%가 반대한 것에서도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절대다수 정서와 교계 지도자들의 여러 차례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울시청 광장에서의 동성애 쿼어축제를 허락하므로, 진동성애, 반시민적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다.

또 동성애 쿼어 축제 개막식에서는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세력들은 온갖 선정적 말로 근거 없이 비관했다’는 발언과 ‘단언컨대 혐오 세력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비난하였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몰고, 반대하는 입장을 ‘혐오’로 몰아가는 망언을 하였

다. 더구나 ‘근거 없이 비관했다’는 대목에서는 과연 문경란 씨가 서울시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비관 근거는 너무나 많다. 문 위원장만 모르는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취향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거리로 끌고 나와, 원하지도 않는 국민들에게 선전/선동하고 국민들에게 강요할 이유는 없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가 아닌가!

즉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보편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불필요하게 국민들을 자극시키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서울 시민을 모욕하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을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폭거요,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 공직자의 편파적이고, 시민의 생각과 정서를 무시한 발언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스스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

이번에 쿼어문화축제를 후원하는 모 단체에서도 ‘동성 간 성행위 등으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슨 이유로 시민들이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지, 문 위원장은 똑똑히 보고 판단하라.

우리 사회에 이런 혼란과 갈등이 유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무시하고 망동하는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동성애 확산이 심화되고 있음을 모르는가?

그런가 하면, 10여 개국 외국 대사관에서 나와서 ‘동성애지지’ 발언을 함으로 외교관례에 어긋난, 타국의 윤리적 문제를 간섭하고 ‘문화 침탈’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 하였다. 특히 캐나다 대사는 한국의 동성결혼 합법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동성애 쿼어축제는 불필요하게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자기들만의 왜곡된 성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들은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벌여 놓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자신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한다고 주장하는데, 자신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문화적 폭력’을 가하고,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는 것은 적반하장(積反下章)의 극치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동성애퀴어축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동성애퀴어축제가 정말 건전하고 선량한 문화 축제라면 왜 네티즌들의 96%가 이를 반대하겠는가?

오직 외길 40년 성경연구의 결정판 / 입소문만으로 들던 그 성경! 성경 읽는 눈이 확- 열립니다!!

# 목회자 초청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III 무료 공개 세미나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에 감탄하실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성경! 평생에 꼭 소유하고 싶다는 성경 出刊



강사 강 유 식 목사

●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 말씀찬송선교회 대표 ● 프리즘성경연구원 대표  
● 프리즘성경Ⅰ 편저 ● 프리즘문맥성경Ⅱ 편저 ● 프리즘문맥키아즘 성경Ⅲ 편저



● 장호순 목사 ● 순복음금강교회 담임

- 공주지부 매주 수요일 09시 ~ 16시
- 전주지부 전주살롬교회 매주 월요일 09시~17시
- 지부장 장호순 목사 순복음금강교회 담임
- 접수비 : 5,000원(식대)
- 주 소 : 충남 공주시 소하동길 151-3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Ⅲ’을 탐내는가?

1. 이 키아즘 성경을 보고 읽는 법을 배우면, 성경이 땀 뚫립니다.
2. 성경의 핵심(하나님의 구호)을 바로 알게 하도록 시각화에 오직 외길 40년을 바쳐서 편집된 성경으로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시각화로 문맥의 의도가 한눈에 잡힘.
  - 수십 번 성경 통독으로 해결 못한 핵심 파악 문제가 쉽게 해결됨.
  - 12책 ‘대화 묶기’로 인쇄되어 내용파악이 쉬워짐.(구속사적 사건과 인물이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내용파악이 가일층 쉬워짐)
3. 설교자의 고민,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해결됩니다.
4.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칭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별함으로써 핵심을 드러내는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행운권 추천 : 접수순 100분 가운데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분에 한하여 추천, 3명에게 본 성경(권당 120만원 상당)을 무료증정

상담전화

010-5117-8291, 041)881-0010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 사모회 정기월례회

|일시| 2015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장소| 총회본부 4층 성전  
(12시부터 점심식사 1시 정기월례회)



고문 박희숙  
성문교회



고문 최혜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광숙  
은혜와진리교회



증경회장 김정희  
제주순복음교회



증경회장 김광란  
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진주온평교회



직전회장 김영숙  
순복음거제중앙교회



회장 신동신  
청신교회



1부회장 전희순  
제주국제순복음교회



2부회장 차추련  
안동성곡교회



총무 박경미  
순복음승리교회



협동총무 최선희  
순복음예수나라교회



서기 오숙희  
밝은빛교회



부서기 김귀순  
아세아순복음교회



회계 조정에  
순복음약속교회



부회계 서수영  
은혜중앙교회



감사 이은숙  
정음순복음중앙교회

●참석대상●  
사모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신동신 · 총무 박경미 (010-2167-7422)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김옥태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한델루아!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바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3~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CONTENT     
www.contentorgan.co.kr

## 유럽의 전통 CONTENT(콘텐츠) 오르간

- ▶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재현합니다.
- ▶ 전세계 60여 나라에서 선택하였습니다.
- ▶ 오르간 몸체를 원목으로 제작합니다.
- ▶ 구매자의 특별 주문제작 서비스 합니다.
- ▶ 10년간 무상 A/S를 책임집니다.
- ▶ 비전공 반주자 교육을 책임집니다.
- ▶ 거품없는 진실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CONTENT 오르간 적정 예상가격

(단위/만원)

|         |             |           |               |           |               |
|---------|-------------|-----------|---------------|-----------|---------------|
| 300석 내외 | 800 → 1,200 | 700석 내외   | 1,500 → 3,000 | 1,500석 내외 | 3,000 → 7,000 |
| 500석 내외 | 800 → 1,500 | 1,000석 내외 | 2,000 → 5,000 | 2,000석 내외 | 3,000 → 선택    |

(주)네오무역 CONTENT KOREA 오르간 상담: 010-3746-8497 02)536-8213 24시간 A/S센터 : 080-222-2009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 제6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5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2015년 6월 9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묵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 교단 소속 사역자들은 목사안수를 위하여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 ● 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 1.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 학 과  | 과 정                                    | 수업 년 한        | 지원자격                                                                                                                                                                   |
|------|----------------------------------------|---------------|------------------------------------------------------------------------------------------------------------------------------------------------------------------------|
| 목회학과 | 목회학석사<br>(M.M)<br>(Master of Ministry) | 2년4학기<br>40학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li> <li>•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li> <li>•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li> <li>•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부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li> </ul> |

###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여부

###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4.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 ③ 원서접수 : 수시접수
- ④ 면접 :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5. 전형료 및 입금계좌번호

\* 전형료 50,000원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 6.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 Master of Ministry, 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고 교단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한다.
- ③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되면 합격을 하였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④ 기타 상세한 문외는 본 대학원 행정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접수방법 : 지원자는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형료는 계좌에 입금.

###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홈페이지 : www.agpgs.or.kr, E-Mail :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주·야간) 모집

###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정립과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설립을 위해 헌신할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을 양성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 교육목표

본 신학교는 아래와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교단의 일꾼들을 양육한다.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육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④ 선교현장의 실천적 자료개발과 제공

### ● 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 1. 신·편입생 지원자격

| 학 과          | 수업 년 한             | 지원자격                                                                                                                                                           |
|--------------|--------------------|----------------------------------------------------------------------------------------------------------------------------------------------------------------|
| 신입생<br>(신학과) | 4년<br>8학기<br>120학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li> <li>•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li> <li>•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li> </ul> |
| 편입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제 대학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li> <li>• 전문대 졸업자는 2학년에 편입</li> <li>•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별로 편입가능</li> </ul>        |

###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 · 성적 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건강진단서(HIV포함)
- ⑥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⑦ 신앙고백서

###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 신학교 행정실 및 신학교 홈페이지
- ③ 원서접수 : 수시접수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⑥ 합격자 등록기간 : 개별통보
- ⑦ 전형료 : 30,000원
- ⑧ 등록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본교 행정실 방문

###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홈페이지 : www.agpgs.or.kr, E-Mail :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메르스가 ‘준 전시상태’ 이면, 동성애 축제도 멈춰야!

## 박원순 서울시장은 퀴어축제 퍼레이드를 직권 취소하라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 9일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을 서울광장에서 허락하여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오는 6월 28일 또 다시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허락한 상태이다.

지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불안해서 술렁이고 있다. 4차 감염자 까지 나와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준 전시상태’ 라고 까지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시청 앞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는 퀴어 축제 퍼레이드 행사를 허락한 것은, 메르스와 같은 질병에 수많은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 박 서울시장이 발원한 것으로 인하여, 여론에서도 대권주자 후보군 가운데 1위의 호감도를 얻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바로

서울 시민들을 생각한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서울시는 즉각 퀴어축제 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장소 사용 허락을 직권 취소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만약 그래도 이를 서울시가 계속 허용/받치한다면, 박 시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메르스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퀴어 문화축제를 통해서 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심도 없다는 또 한 번의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 행사의 서울광장 장소사용 허락을 즉각 취소하는 것이, 박 시장의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최근 한 포털의 여론 조사에서도 네티즌의 96%가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있지 않은가! 이것이 민심인 것이다.



서울시와 박 시장은 국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해 주리라 기대한다. 국민들과 시민들의 보편적 생각과 정서를 무시하는 정치인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 군선교활동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

## 명동아름다운치과, 미래군선교네트워크 협약

명동아름다운치과(대표원장 박철화)와 미래군선교네트워크(사무총장 윤병국 목사)는 지난 6월 15일 명동아름다운치과에서 협약식(MOU)을 갖고 건강한 국방과 건강한 군선교활동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명동아름다운치과와 대외협력국장 김준성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사무총장 윤병국 목사의 기도 후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6월의 초여름부터와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의 창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명동아름다운치과와 미래군선교네트워크와 협약식을 통하여 전국의 많은 군종관계자들과 자비량 군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렸다.



# 아신대, 중국사역전문가 양성 주력

## 선교중국어학과 신설, 4년 동안 2개 학위 취득 가능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과 관련된 교육,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의 중국전문가양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대학들이 중국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려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중국 관련 학과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국사역전문가 양성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신설과 제반여건의 확충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비해 이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중국사역전문가양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수요에 절실했을 통감하

고, 복음사역을 포함한 대(對)중국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21세기 중국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2013년에 선교중국어학과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으로는 전공기초과정(1~2학년), 전공심화과정(3학년), 복수학위과정(4학년)이 있으며, 복수학위 과정은 현재 중국 자매대학교와 협약하여 3+1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연내에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2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특화 과정으로서, 중국사역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이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3년을 수료하고 중국의 대학에서 1년을 수료한 후, 양교에서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나아가 중국과 더불어 세계복음사역의 뜻을 품은 ACTS 선교중국어학과는 국제기독교학교연맹(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에서 인준한 중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소정의 과정 역시 이수할 수 있다.

# 근대화에 기여한 기독교에 대한 교육 이뤄져야

##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시안에 관한 공청회’ 열려



‘한국교회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강평 목사)는 지난 1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위원장 이강평 목사의 사회, 박명수 교수(서울신대)와 이은선 교수(안양대)의 발제,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와 임희국 교수(성신대)의 논찬,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선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서 서양 문물의 수용만을 다루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3국에 서양 문물과 함께 기독교가 수용돼 미친 영향도 함께 서술해야 근대 이후의 동아시아 사회가 유교와 불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중요한 종교로서 자리잡은 다종교사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 내용으로 교육이 된다면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 문물은 수용됐으나 종교인 기독교는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양의 근대 문물과 함께 들어와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 기독교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역사와 교육과정 시안 -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입장’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명수 교수는 “중학교 역사과목 한국사 부분에서는 아예 종교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학교 역사가 개항 이후 한국사회에 들어와서 서구 문명을 전파한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사회는 기독교를 통해 민주주의, 남녀평등, 근대화, 노동의 가치 등 많은 것을 배웠고, 이는 근대 대한민국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기독교는 한국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양 문명과 한국사회를 연결한 가장 분명한 연결고리였다. 또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 가운데 하나다. 한국 기독교는 정치, 교육, 복지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개항 이후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수용을 역사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교회봉사단, 네팔구호 협력체제 구축

## 간사단체 ‘월드디아코니아’ ... 현장 활동 상황 배포

한국교회 연합 봉사단은 네팔 지진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구호활동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이재민 지원사업을 펼쳐나간다.

아이티 대지진(2010년), 필리핀 태풍(2013년) 피해 현장 등에 한국교회 봉사단은 연합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간사단체로 활동한 바 있는 한국교회봉사단/월드디아코니아는 지난 5월 26일 주요 교단들과 함께

네팔 구호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준비모임을 갖고 ‘한국교회 네팔구호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연석회의의 참여 교단들은 우선 ‘네팔 재난구호 한국교회 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정보공유를 통해 네팔 이재민 구호 사업의 효율적인 전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각 교단별 지원내역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네팔 재난 구호 한국교회 현장 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 동성애대책위, 긴급좌담회 개최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월) 오후 4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동성애 조정과 확산 대응,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긴급 대담’을 개최했다. 동성애대책위 본부장 소강석 목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네 번의 발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김지연 약사, 염안섭 병원장, 이태희 변호사, 이용희 교수(가천대학교)가, 토론자로는 김명일 사무총장(한창종), 정성진 공동본부장(미래목회포럼), 이병대 사무총장(한국교회인론회) 등이 참여했다.

발제에 앞서 양병희 대표회장(한교연)이 환영사를 전했다. 박종원 목사(한교연)가 합참기도를 인도했다.



황수원 대표회장(한창종)은 개회기도를 했고, 유만석 대표(한국교회인론회)는 인사말을 전했다.

cafe.daum.net/cha2319

# 세계로교회·기도원

“강원도 횡성 청정지역인 병지방계곡의 수려함과 물맑고 공기좋은 세계로교회·기도원에서 연중 무휴 수련회를 받습니다.”

### 가. 시설

- (1)식당 : 150명 동시 식사가능(유기능식단)
- (2)숙소 : 독립객실 15개(4-6인실), 성전숙소 등 총 150명 수용가능
- (3)성전 :
  - 대성전(전 프로텍터 설치) 70평
  - 다니엘 성전 45평
  - \*예배시설 완비(음향, 전자피아노 등)
- (4)부대시설 : 족구장, 야외테니스장, 동물농장, 구내매점, 바비큐 그릴 설치 등
- (5)등산로 : 병지방 ~ 어답산 오토캠핑장까지 약 2-3시간 코스

### 나. 먹 거 리

저희 세계로 교회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청정 발효물과 인근 산야에서 채취한 야생 산나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 다. 교 통

중양고속도로 횡성IC에서 30분 거리

### 라. 주변환경

저희 세계로교회는 횡성 어답산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급수의 맑고 수려한 병지방계곡과 국내 유일의 중탄산 온천수인 횡성온천이 자근거리에 있습니다.

### 강원신학교 신·편입 학생모집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연중 수시모집(교무처 010-7504-0172)
- 학 제 : 본 교단 총회 4년제 신학교
- 장학/복지 : 이사장 장학금, 학장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기숙사 원비
- 특 전 : 총회 목회대학원 진학, 전도사 자격부여
-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동길54-91 강원신학교 교무처(세계로교회 내)
- 전 화 : 033-345-2020 (F-P 010-7504-0172)
- e-mail : i14499@hanmail.net



cafe.daum.net/cha2319

문의전화 : 033-345-2020, 010-5325-9191(차충열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서류접수마감일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 목사고시 청원서 : 총회 홈페이지([www.aogk.org](http://www.aogk.org))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교단서식 → 15호 목사고시청원서 다운
  - 구비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참조
    - \*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회 고시위원회 제출, 1부는 지방회에 보관한다.
- 서류접수처 : 150-15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 오리엔테이션 : 2015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 성경고시에 관한건
  - (1) 논문 대신 성경고시를 보기로 하다.
  - (2) 성경고시는 성경암송과 문제풀이로 하다.
-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 23일(화), 오전 10시 총회본부
- 목사고시료 : 50만원
  - (1) 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목사고시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 목사고시 과목
  - (1) 구약학 (2) 신약학 (3) 조직신학 (4) 교회사 (5) 교회 행정학 (6) 목회 윤리학
  - (7) 헌 법 (8) 기독교교육 (9) 교회성장학 (10) 면접 (11) 설교 실기(5분)
  - \*설교는 2부 작성(심사용1부, 설교자용1부) 목사고시 당일에 제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진등용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김병묵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영성

##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목회자 성령캠프 개최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총회장 정영호 목사)  
에서는 교단 각 기관이 협력하여 목회자 성령캠프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에 한국의 형제교단인 예수교  
대한하나님의성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미  
국내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의 활동과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 주  
요관광지를 함께 돌아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사랑 나눔의 귀한 자리에 형제교단의 회원들을 초청하오니 많  
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 시 : 2015년 9월 21일(월) ~ 24일(목) 3박 4일
- 장 소 : 아름다운 산장([www.sanzang.com](http://www.sanzang.com))  
31601 Highway 330, Running Springs, CA
- 대 상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목회자와 사모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 지원(숙식, 유니폼 등)
- 접수마감 : 7월 20일(월) 오후 5시까지
- 접 수 처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2)2675 - 5181 ~ 3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총회장 정영호 목사



## 남일공예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50년 전통의 남일공예 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임석순 목사 // 한복합 중앙위원, 한국중앙교회 담임

나의 목회 중심은

- 내가 변화되는 것 -



1980년대 이 민족의 교회를 향한 꿈을 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독일 유학길에 오르면서 경험했던 충격은 독일에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 넘게 유럽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영적 빈민 속에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황폐함 속에서도 남겨두신 그루터기교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황폐함 속에서 피어나는 복음의 생명력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민족 교회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학위를 마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받았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목회와 후학 양성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족교회를 살리겠다는 저의 헌신과 열정은 어느새 복음을 들고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판단과 질책과 정죄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부흥에 대한 열정은 어느새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진 성도들의 숫자와 그로 인해 교회가 갖게되는 힘에 대한 지령의 유혹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지쳐가고 있던 저는 내 열정과 헌신과 능력으로 -설혹 복음을 동원한다 해도-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현재 진행형

의 삶입니다. 그 때부터 저는 목회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중심을 내가 변화되는 것에 두고 날마다 세 가지를 확인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그 안에 보배를 기렸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려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깨뜨려져야 되는 것인데 나는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깨뜨려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지? 복음이 주는 자유와 낙낙함으로 예수님이라는 보배만 드러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싸움을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동기가 되는 목회를 하는지? 나의 헌신과 열심으로 내가 기대하는 보상은 무엇인가? 아니면 내 기대만큼의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나? 결국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의 동기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고백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한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이미 받은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는지의 싸

움을입니다. 자주 마가서 3:5-6과 에스겔 34:7-10절을 묵상하면서요.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장을 하고 있나? 예수의 변화된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자라게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중심인 목회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뒤집어져 바뀌는 것만을 은혜라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작은 한 가지 순종은 오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자만하거나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다른 동역자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장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으로 날마다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큰 사랑으로 하늘나라로부터 보내진 자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는 방법은 주님이 하신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깨뜨려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람이 동기가 되는 목회로 내 생각은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이 싸움을 이 세상에 하기가까지 하고 싶을 뿐입니다.

초대시

예광 장성연 // 서예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역임 / 현대기사문학 연구가 / 한국원로서화가 한국대표작가 / 미국 매릴랜드 초대전('98) / 미국 한국대사관 초대전('98) / 문인화 여행 外 13종 서화교본 발행 / 한국민족문화상 수상('06) / 정도 육백년 자랑 스런시민상('94) / 기독교문화예술대상('07) / 도전 한국인상 대상 수상 /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국회) / 1998년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우수상 / 1988년 KBS 전국회화대회 금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제4대 서울서예가협회 회장 역임

행운목에 꽃이 피어

|                     |                     |
|---------------------|---------------------|
| 시월말께 아내에게 고운문자 날아오길 | 민어보자 기대하자 행운의꿈 다가오라 |
| 베란다의 행운목에 꽃이피어 있다하네 | 우리집안 좋은일이 며칠전에 있었다네 |
| 행운목은 사시사철 싱그러운 잎뿐인데 | 수형이가 아빠되는 새생명이 잉태되어 |
| 꽃소식을 알려오니 나의기분 싱글벙글 | 할아버지 이름표를 준비하러 함일거야 |
| 이십년전 미국에서 개인전을 열었을때 | 아들내외 선교사로 목회자의 꿈을잉태 |
| 전시장엔 축하화분 거의모두 행운목을 | 구원열차 기관사로 안내자가 되는것은 |
| 누구든지 좋아하는 그이유는 무엇일까 | 부모로서 행운이요 참행복이 될것인즉 |
| 행운이란 단어로도 행운찾아 오기때문 | 행운목에 꽃이핀건 하나님의 섭리이리 |

사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들이 아쉽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전염병은 발생 한 달여 만에 그 악성 전염성이 찾아드는 것 같다. 이번 전염병 사태로 잃은 것은 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귀한 생명들과 국민 경제적 손실과 위기관리 혼선으로 인한 대정부 국민신뢰도,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성숙해야겠다는 반성을 또 한 번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국민들이 단결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는 이타적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기관들이 전염병에 대한 과장 보도로 지나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점이나 질병관리와 관련한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언동들, 일부 양식을 저버린 사람들의 몰인정한 처사들, 거짓말로 전염병 접촉사실을 속인 감염 격리 대상자들의 행동 등등은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 성숙도가 아직도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향후에도 어떤 국가 재난이나 괴질 발생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국민을 당할수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성의 태세를 가지고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번 전염병 소동을 거치면서 우리 각자가 각성할 일은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걱정해 주는 선한 이웃이 되는 양식이 더욱더 지녀야 하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 동고동락하는 마음 마음을,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고난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나누는 마음, 그것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고 행동으로 실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령 첫 번째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난 5월 20일 전후 적어도 종합병원을 내병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는 사람이나 감염병원을 내병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양심적으로 한 사람도 빠진없이 솔선하여 전국의 보건소에 일제히 지진 신고를 했었다면 이 메르스 전염 사태를 보다 빨리 수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마음의 출발점은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 '내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염려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 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감염자가 다녔던 병원이나 감염자인 줄 모르고 가까이서 점근했던 사람들을 통해 제2, 제3의 감염이 되는 성향의 전염병이 바로 메르스란 질병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인해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이 전염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마음과 살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자혜 있는채 말라"(렘12:15,16),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고 성경은 말씀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 이웃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서로 나누어 줘야지라.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당부하신다. 일부 환자나 격리 대상자의 무책임한 행동들을 되새겨 보고 각자가 타산자적으로 삼아 양식 있는 시민의 자질이란 무엇인지를 스스로 살펴 볼 줄 알아야 하겠다. 감염 병원에 갔던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가 격리를 받아야 한다고 분류된 감염 의심자가 보건 당국의 간곡한 당부를 외면하고 마음대로 여행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등등, 이런 사소한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메르스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여기 저기 전국 각지에서 감염자가 불거지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분들의 자녀의 등교를 거부한 일부 교양머리 없는 학교 관계자, 주민들에게 '우리 아파트에 메르스 환자를 이송한 소방관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방송을 한 아파트 관리자 등 몰상식한 처사도 있었다. 전염병이란 방역 당국이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결집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위기는 기회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온 나라가 국민수준의 마음 열이를 했던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착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하나되는 이타적인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자. 이 일에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일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기독교 장묘문화! 이대로 좋은가?”

1. 한국의 장묘문화

- 지난해 화장률이 79.6%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화장을 합니다.
- 높아가는 화장률과 묘지 부족 등으로 한국의 장묘문화가 봉안당이나 자연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교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교회 공원묘지에 교인들의 시신을 매장하고 있습니다.

2. 종교별 장묘문화

- 기독교인들은 화장 후에 마땅히 갈 곳 없어 주변의 값비싼 사설봉안당이나 수목장에 안치되어 방치된 채 가족들만의 쓸쓸한 추모 속에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이제는 기독교도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3. 기독교 전용 추모관의 건립을 통해 교인들을 하나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종교시설 내 설치운영을 적극권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인.허가가 용이해졌습니다.
- 타 종교보다 기독교의 경우 교회 부지 내 또는 수련원, 기도원 등이 있어 추모관 건립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 주변 민원에 대한 우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 내가 다니던 교회, 내 자손들이 다니는 교회의 추모관에 함께하여 수시로 고인(故人)을 찾아 보고 기도하며 하나되는 교회를 만들어 보심은 어떠 할런지요?

하루 속히 한국교회가 매장 문화의 관습에서 벗어나 화장문화로 변한 시대를 인정하면서 교회 상황에 맞게 교인들을 배려하고 보듬어 앉는 기독교 장묘문화를 만들어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4. 이런 추모관이라면 어떠신가요?

-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있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 유골의 부패와 변질 없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 추석이나 설날 등에 교인들과 함께 추도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의 사설봉안당과는 차별화된 우리 교회만의 맛을 낼 수 있으며 건축비가 경제적인 봉안당이면 좋겠습니다.
- 유골의 변질과 부패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관리운영비가 저렴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이중 밀봉방식으로 유골의 부패와 변질이 없는 크리스탈함 (특허 제 10-1236852호)



■조명수단을 구비한 납골함 어셈블리 (특허 제 10-1236853호)

美空學堂 Space Aesthetics 공간미학

K F&D 코리아에프앤디 Korea Funeral & Development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3 대표전화 : 1899-1659 / FAX 032)512-0925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15 중·고등부 비전캠프

주제 :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이사야 49 : 15 -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단내 미자립교회 및 소규모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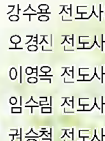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중·고등부 비전캠프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 일 정 : 2015년 7월 27일(월) ~ 29일(수) 2박3일간
- 장 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4)
- 주 제 : “내 이름 아시죠”(사 49:15)
- 대 상 : 본 교단 산하 전체 교회 중 · 고등부
- 등 록 비 : 60,000원(식대, 숙박비, 교재비 일체 포함)
- 접수방법 : 전화 신청 후 1인당 1만원 선입금(250명 선착순 마감)
- 접수 및 문의
  - ①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02)845-5095, FAX. 02)845-5096
  - ② 주강욱 목 사 : 010-8338-5095
  - ③ 이영옥 전도사 : 010-4206-4006
  - ④ 강수용 전도사 : 010-4466-8621
- 등록비입금 및 후원금 계좌 : 외환은행 191-18-47059-4(예금주 임형순)

| 교문                                                                                  | 대회장                                                                                 | 대회본부장                                                                               | 진행위원장                                                                               | 주강사                                                                                 | 특별강사                                                                                | Guest                                                                               | 총진행                                                                                   | 진행위원                                                                                  | 준비위원                                                                                                                              |
|-------------------------------------------------------------------------------------|-------------------------------------------------------------------------------------|-------------------------------------------------------------------------------------|-------------------------------------------------------------------------------------|-------------------------------------------------------------------------------------|-------------------------------------------------------------------------------------|-------------------------------------------------------------------------------------|---------------------------------------------------------------------------------------|---------------------------------------------------------------------------------------|-----------------------------------------------------------------------------------------------------------------------------------|
|  |  |  |  |  |  |  |  |  |                                              |
| 조용목 목사<br>교단 정책위원장<br>은혜와진리교회 담임                                                    | 진동용 목사<br>교단 총회장<br>세소망교회 담임                                                        | 김병목 목사<br>교단총무<br>금산순복음교회 담임                                                        | 권용덕 목사<br>교육국장<br>철원순복음교회 담임                                                        | 신재영 목사<br>부총사회장<br>새김전교회 담임                                                         | 서정복 목사<br>남원중앙교회 담임                                                                 | 이동진 버리스터<br>소울싱어즈                                                                   | 조선남 목사<br>교육국 차장<br>대림벤엘교회                                                            | 오세준 목사<br>참좋은교회 담임                                                                    | 주강욱 목사<br>대림벤엘교회                                                                                                                  |
|                                                                                     |                                                                                     |                                                                                     |                                                                                     |                                                                                     |                                                                                     |                                                                                     |                                                                                       | 임형순 목사<br>순복음아펜교회 담임                                                                  | 변원식 목사<br>창조교회 담임                                                                                                                 |
|                                                                                     |                                                                                     |                                                                                     |                                                                                     |                                                                                     |                                                                                     |                                                                                     |                                                                                       |                                                                                       | 강수용 전도사(대림벤엘교회)<br>오경진 전도사(대림벤엘교회)<br>이영옥 전도사(대림벤엘교회)<br>임수림 전도사(보통인도교회)<br>권승철 전도사(남원중앙교회)<br>이윤규 전도사(남원중앙교회)<br>최철희전도사(순복음아펜교회) |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및 각 지방회, 대림벤엘교회 교육부